

# 조경비평의 이론과 방법론 모색

배 정 한\* · 조 정 송\*\*

\*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박사과정 · \*\*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An Exploration of Theory and Methodology in Landscape Architectural Criticism

Pae, Jeong-Hann · Cho, Jung-So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some concepts, objects, and methodologies which are essential components in the theoretical inquiry of Landscape Architectural Criticism (LAC), and to explore the structure of LAC. Through comparing the artistic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architecture with the latent criticism in it, and introducing some important concepts of criticism and aesthetics, the *concept* of LAC is defined operationally. And through grasping changes of the definitions and concepts about landscape architecture, and classifying the fields of it which are related to critical structure, the *objects* of LAC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Virgil C. Aldrich* and many other aestheticians, general aspects of criticism are divided into ①analysis, ②evaluation, ③interpretation, and ④description. Through these aspects and *Wayne Attoe's* opinion(which seemed to be generalized in architectural criticism), the pertinent *methodologies* of LAC are explored.

### I. 머리말

현대적 조경의 모습이 형성되어가던 20세기 초에 허버드와 킴볼이 내린 조경에 대한 정의나, 그로부터 근 백년이 지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

결속에 놓여진 현시대의 조경을 언급한 버튼과 헤르쯔의 글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art"이다.<sup>1)</sup> 리벨트나 데스와의 전통적인 미학이론을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sup>2)</sup> 조경이 우리의 생활 터전을 아름답고 쓸모있게 다듬고 가꾸는 하나의

이 논문은 1993년 3월 27일 한국조경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에서 발표된 바 있음.

1) H.V.Hubbard & T.Kimball(1917)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Landscape Design*, N.Y.: MacMillan, p.1. ; Cf. P.Burton & R.Hertz(1989) "Deconstructing Landscape", *The Avant-Garde and the Landscape: Can They Be Reconciled*, Minneapolis: Landworks Press, pp.233-40.

2) Libelt는 「*Estetyka, czyli umiactwo piekn.*, 1894」에서 정원술을 자연을 이상화시켜 미의 이상을 구체화하는 사회적 예술이라 분류하고 있고, Dessoir는 「*Asthetik und allgemeine Kunstwissenschaft*, 1906」에서 조경과 건축을 창조적인 특수예술로 규정하고 있다(Cf. W.Tatarikiewicz(1976) *A History of Six Ideas: An Essays in Aesthetics*, 이용대 역(1990), pp.82-85).

예술이라는 점에는 이론(異論)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예술작품은 향유의 대상이나 인식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 마치 우리의 발자국마다 그림자가 뒤따르듯 작품은 이 비평 의식을 동반한다”<sup>3)</sup>라는 피롱의 말처럼, 조경이라는 예술작품에 대해서도 그것을 제각기 느끼고 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레 우리 마음에 일기 마련이다. 본 연구는 우리의 생활속에 무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조경비평」에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는 곧 조경비평의 기능이 갖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1) 「조경비평」은 작품이 지니는 내적 가치와 의미를 탐구하고 발견하여 제시하는 역할을, 작품에 대한 잠재적 비평의식을 수집하여 종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중의 외마디 반응과 이를 결과시킨 조경이라는 자극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로서, 대중과 조경가라는 전문가간에 가교를 놓는 작업으로서 「조경비평」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3) 왜곡된 조경설계의 양상을 바로 잡고 생활과 분리되지 않은 사회적 예술로서 조경을 지탱시킬 수 있는 감시장치로서, 디자인 언어의 정밀함을 기르고 설계교육의 새로운 방법을 도출해내며 자유로운 변화를 부추기는 수단으로서 「조경비평」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4) 「조경비평」은 조경작품의 시시비비를 지적하는 작업임은 물론 조경에 대해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는가를 찾아서 알리는 교육적 작업일 수도 있을 것이다. (5) 조경비평이 조경사 자체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누적되어 조경사의 한장 한장을 장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게 되며, 이 역시 「조경비평」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비평을 크게 나누면 실제비평과 이론적 비평연구로 구분된다. 이론적 조경비평 연구의 큰 줄기는 “비평이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갖는가(개

념)? 누가 무엇을 비평해야 하는가(대상)? 무엇에 근거하여 어떤 점을 비평해야 하는가(기준) 무엇을 매개물로 하여 어떻게 비평해야 하는가(방법론)?”라는 일련의 의문 속에 놓여져 있다고 본다. 이들은 또한 실제비평을 구성하는 요건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네가지 사항 중, 비평의 개념, 대상, 방법론을 모색하고 가능성을 타진함으로써 조경비평의 이론적 틀을 구상하고 그 필요성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초보적인 단계에 놓여있는 조경비평의 현실을 고려하여 예술비평의 전반적인 이론과 특성을 개관하고 이슈를 찾아내어 조경비평에 연결시키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며,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작업이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비평의 풍토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조경계에 비평문화의 기본적인 토양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의 작은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sup>4)</sup>

## II. 조경비평의 개념과 대상

조경비평을 거론함에 있어서 우선 마주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그러나 정의는 그리 명쾌하게 내려지지 않는다. ‘조경’이나 ‘비평’은 일괄적인 정의를 내리기에는 힘든 다차원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경비평의 개념을 일정정도의 범위를 가진 틀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

### 1. 비평의 개념과 조경

위기(crisis)에 직면하여 상황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자신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모든 시도를 비평행위(critical activity)라 규정짓는다면,<sup>5)</sup> 비평에서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무

3) Gaëtan Picon(1953) *l'Ecrivain et son ombre*, 유재호 역(1985), p.1.

4) 물론 한국의 조경계가 비평의 불모지인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점을 분석 구명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현대조경사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상, 그러한 분석은 사료에 근거한 것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평이 부재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수준에서 논의함이 옳다고 본다.

5) 장경렬(1991) “비평의 논리”, 현대비평과 이론 1(1), p. 10.

엇일까? 영어에서 ‘비평’(criticism)이라는 용어는 17세기 초에 출현하게 된다.<sup>6)</sup> Criticism, kritik, critique 등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테크네(τεχνη)의 일종인 크리티케(κριτικη)에 가닿고 있다. 이 단어는 ‘분할하다, 결정하다’, ‘결정을 위한 지표, 기준’, ‘판단자, 해석자’ 등의 연관된 의미를 지녔음은 물론, 인간의 인식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정신기능의 근간을 의미한다.<sup>7)</sup> 일반적으로 criticism이라는 말에는 ① 비난(fault-finding)이나 이의신청(異議申立; taking exception), ② 상찬(praise), ③ 판단(passing judgements), ④ 비교(comparison), ⑤ 감상(appreciation)’이라는 다섯가지 관용적인 의미가 있다.<sup>8)</sup> 이런 의미에서 ‘비평’에는 결점이 있어서 책망할 만한 대상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는 공격적인 의미와 함께, 장점을 발견하고 이를 상찬해서 격려한다는 개선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자의 어의로 볼 때, 「批」자는 ‘손으로 친다, 깎다(削)’, ‘보여준다(示)’는 뜻을 가지고 있고, 「評」자는 ‘평론하다’, ‘평정하다’는 뜻으로서, 결국 ‘비평한다’는 것은 ‘비난의 말’, ‘시정(是正)의 말’, 또는 ‘보여주면서 논평’하는 비난과 시정의 행위이자 의사전달의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비평은 논쟁의 여지가 많은 작업이다. W.C.그리인, 로드웨이, 스톨니쯔, T.M.그리인등 대표적 비평이론가들의 견해를 통해 개략적으로 예술비평의 역사를 훑어보면,<sup>9)</sup> 비평은 기술(description), 해석(interpretation), 평가(evaluation)라는 대립적인 동시에 상보적인 국면간의 변증법적 논쟁을

통해 발전해왔음을 간파할 수 있다. 비평의 역사란 결국 분석과 가치판단, 혹은 객관과 주관이라는 대립적 방법론의 반성과 부침임을 알게 해준다. 작품 내에서 사실로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특징을 다루는 것이 기술이라면, 이에 입각해서 명백하지 않은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 해석이고, 예술에 대한 최종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평가는 기술과 해석을 토대로 이루어진다.<sup>10)</sup> 이러한 국면은 예술비평의 언어에 대한 올드리치의 견해를 통해 더욱 명백히 확인된다.<sup>11)</sup> 그러므로 위의 국면에 근대이후 과학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대두된 분석(analysis)의 측면을 더하면 비평은 ① 분석, ② 평가, ③ 해석, ④ 기술의 네가지 국면으로 정리될 수 있다. 조경비평 역시 이러한 이론적 틀 속에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경비평의 차별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경이 여타의 예술과 어떤 공통점을 지니며 어떤 차이를 지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폴란드의 저술가 리벨트(K.Libelt)에 의하면, 조경은 자연을 이상화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미의 이상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예술이라 할 수 있고, 공간 속에서 미의 이상을 구체화하는 형식예술 또는 시각예술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며, 계절의 변화나 기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연출된다는 점에서 시간성을 지닌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12)</sup> 또한 데스와(M. Dessoir)를 따르자면, 조경은 창조적인 특수예술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sup>13)</sup> 그리고, “통시적으로 역

6) René Wellek, 최영 역(1991) “문학비평에 대한 역사적 조망”, 현대비평과 이론 1(2), p.219.

7) 김문환(1989) “예술비평의 미학적 해명”, 성곡논총, 20 : 516-17.

8) C.M.Galay & F.N.Scott(1901) *An Introduction to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Literary Criticism: The Basis in Aesthetics and Poetics*, Boston: Ginn & Co., pp.1-3, 백기수(1978)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pp.228-29에서 재인용.

9) Cf. William C. Greene (1965) *The Choices of Criticism*, MIT Press, p.6. ; Allan Rodway(1973) “Criticism”, *A Dictionary of Modern Critical Terms*, ed, R.Fowle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42. ; Jerome Stolnitz(1960)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Criticism*, 오병남 역(1990), pp.341-478. ; Theodore M. Greene (1952) *The Arts and the Arts of Criticism*, Princeton Univ. Press, pp.369ff.

10) 황유경(1991) “분석미학에 있어서 예술비평의 문제”, 미학, 16 : 155.

11) Cf. Virgil C. Aldrich(1963) *Philosophy of Art*, 오병남 역(1983), pp.137-80.

12) Tatarkiewicz, *op.cit.*, pp.82-83에서 재인용.

13) *Ibid.*, pp.84-85에서 재인용.

사를 볼 때, 예술·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서의 예술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건 늘 인간정주환경의 핵심적인 요소였다”<sup>14)</sup>는 점에서, 조경은 화랑이나 전시장에 간혀진 채 소수의 취미에만 봉사하는 여타의 시각예술과는 달리 사회성과 대중성을 지닌 일상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경은 일상성, 사회성, 시각적 측면, 시간성, 대중성, 그리고 과학적 측면을 지닌 예술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예술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경 고유의 속성상 조경비평은 문학, 음악, 영화, 미술, 건축비평 등과 구별되는 속성을 자연히 지니게 된다. 일단 조경은 시간예술이라 할 수 있는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등의 공연예술과는 맥을 달리하게 되고, 인쇄매체를 통해서 대중과 의사소통하는 문학 및 전시를 통해 대중과 교감하는 미술과도 구별되므로, 조경비평 역시 차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편, 조경은 소개의 측면, 대상의 측면 등에서 건축과 구분되는 분야임에는 분명하지만, 공간을 다루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장소의 창조라는 측면 등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니며 이 두 분야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부쩍 많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경비평은 그 특성·언어·내용·방법론 등의 측면에서 건축비평과 유사한 면을 상당부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경비평을 여타의 예술비평에서 독립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차별성의 근거는 조경의 고유한 속성인 ‘공간의 예술로서의 조경’과 ‘장소의 창조’라는 원리의 인식, 그리고 조경의 타 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 및 사회와의 연관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예술의 개별성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조경비평은 그 당위성을 지닌다고 생각된다.<sup>15)</sup>

## 2 조경비평의 구조

다음으로는 “누가 조경비평을 하는 것이고, 무

엇을 비평하는 것이고, 왜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 즉 조경비평의 구조에 대한 문제가 개념 정의의 틀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예술비평의 일반적 구조에 대한 고찰을 통해 조경비평의 구조에 접근해 보자.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은 실현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세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예술가의 창작활동에서 비롯하여 예술작품으로 객관화되고 관조자가 이를 향수하는 데에서 끝나게 되므로, 예술은 <창작-작품-향수>라는 세가지 측면을 가진 다면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향수활동은 <감상>과 <비평>으로 발전하게 된다. 예술작품은 무엇보다도 창작활동을 통해 객관화되고 사회적으로 표현되어 사회화됨으로써 현실적 형태를 갖게 되며 그 기능이 발휘된다. 그러므로 <비평>은 그와 같이 사회화된 미적 대상으로서의 예술작품에 대한 향수활동에 있어서 향수자 일반과 작가와의 대립이 발전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서 향수의 과정 내에서의 비평적 계기가 성장되어 감상활동을 거쳐 사회적 가치평가에까지 이르게 되는 독립된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sup>16)</sup> 이런 의미에서 예술현상은 [창작→작품→향수→감상→비평→창작]이라는 순환적 구조를 지니며, 비평은 이러한 순환적 구조의 각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조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조경가는 창작과정에서 비교와 판단과 상상과 의심이라는 자기비평의 과정을 거쳐 작품을 사회에 내놓게 되며, 작품이 사회화되면 개인 혹은 대중은 이용과 감상과 평가를 하게 된다. 이러한 작품의 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반응들을 비평가는 종합적이고 확장된 형태로 수집하여 기록하고 비판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순환적 비평 구조는 다시 조경가에게 영향을 미쳐 작품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설정해 본 조경비평의 구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자.

14) Geraldine Bachman(1981)“The Arts and Human Settlements”, EKISTICS 48(288):183.

15) 부연하자면, 조경비평이 여타의 예술비평과 구별되는 점은 비평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일 것이다. 대상이 다르면 그 대상의 특성이나 의미를 평가하고 해석하고 기술하는 언어 역시 다를 것이다.

16) 백기수, 앞의 책, pp.229-30.

우선 비평의 주체와 독자, 즉 「누가 누구에게 비평할 것인가」의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하자. 에토우, 콜린스, 엘리엇, 샤안 등의 이론을 차용하면,<sup>17)</sup> 주체에 따른 조경비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즉, 환경의 조성자인 조경가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자기비평(self-criticism), 조경가가 다른 동료 조경가에게 가하는 동료비평(peer-criticism), 이용자가 조경작품에 대해 반응하는 일반대중의 비평(lay-criticism), 그리고 조경비평가에 의한 비평인 전문가비평(expert-criticism) 등이다. 이 네가지의 양상 중,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조경비평의 개념에 적합한 것은 '전문가비평'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잠재적이고 내재적인 조경비평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정립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때 비평의 주체인 전문가로는 '전문 조경비평가'와 깊은 통찰력과 넓은 식견을 지닌 '조경사가' 및 '조경미학자'를 상정할 수 있다. 조경비평가는 가령 일정한 조경비평관련 교육(예를 들어, 조경이론, 조경미학, 조경사, 조경디자인)을 받아 비평적 통찰력과 상상력을 갖추게 된 사람, 혹은 특정한 등단의 기획(예를 들어, 학회나 전문 저널에서 주최하는 비평심인상)를 거쳐 조경비평에 입문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조경비평의 주체를 '전문가'로 한정할 경우, 비평의 독자는 조경작품을 향수하고 감상하고 이용하는 일반 대중과 조경계 내부의 조경전문가 집단의 두 부류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평의 대상(objects), 즉 「무엇을」 비평하는가의 문제에 이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평에 있어서 「대상」의 문제는 비평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대상의 문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로 한다.

비평의 필요성이나 기능(function), 즉 「왜」의 문제는 일반적인 비평의 기능과 조경의 속성간의

관계성을 고찰하여 추론할 수 있다. 요컨대, 조경비평은 작가와 대중을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 작품과 설계행위와 조경가를 감시하고 격려하는 역할, 작품이 지닌 내적 가치를 탐구하고 사회화하는 역할, 디자인 교육에 도움을 주는 역할 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비평의 방법(methodology), 즉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는 앞서 고찰하였듯이 ① 분석, ② 평가, ③ 해석, ④ 기술의 네가지 국면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방법론의 문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 3. 조경비평의 대상

조경비평의 대상은 바로 조경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일 것이다. 그러나 「조경」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불과 1세기에 불과한 전문적인 조경의 역사는, 「행위」로서의 조경은 인간 개인의 환경보다는 인간 집단의 환경에 관련된 일이라서 그 시대 그 사회의 수요에 따라서 그 행위의 외연과 내포가 변할 수 밖에 없다<sup>18)</sup>는 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반면 조경이라는 하나의 명사는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이러한 변화를 담보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렇다면 조경비평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비평하는 행위인가.<sup>19)</sup> 일단 「조경작품」을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조경작품의 창작과정을 크게 설계와 계획이라고 구분한다면, 비평의 대상으로서의 조경작품은 설계작품이라고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설계는 과학적·기술적 지식은 물론 디자이너의 창조력과 직관이 잘 어우러져야 하는 높은 차원의 인간 능력을 요구하는 것인 반면, 계획은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수단이 강조되기 마련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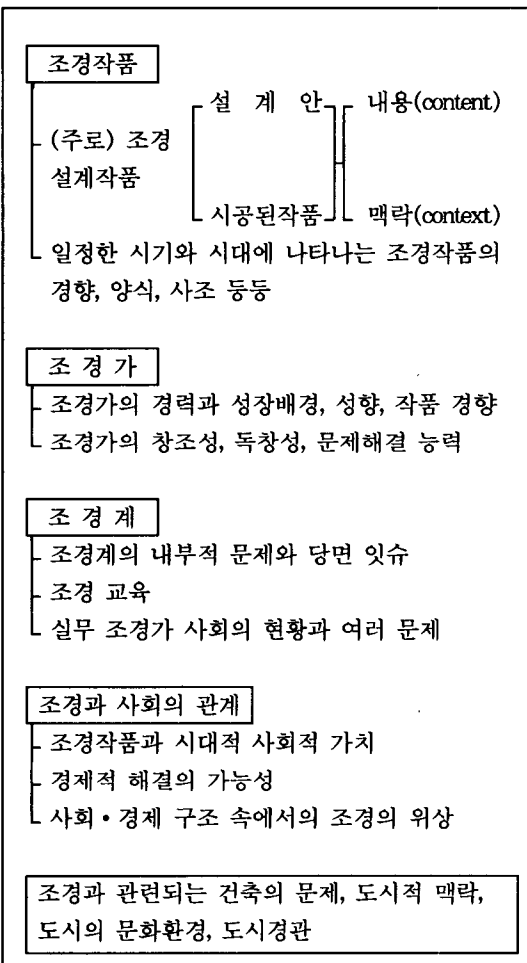
17) Cf. Wayne Attoe(1978) *Architecture and Critical Imagination*, N.Y.: John Wiley & Sons, pp.129-61.; Peter Collins(1971) *Architectural Judgement*, London: Faber, p.146.; T.S. Eliot, "The Function of Criticism" in *Selected Essays 1917-32*, 최중수 역(1974), p.89.

18) 황기원(1983) "조경의 역사와 역사 속의 조경", 토지개발기술, '83춘계호: 36.

19) 이후 전개되는 조경비평의 대상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배정환(1993) "조경비평의 이론과 방법론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대 석·논, pp.41-52를 참고할 것.

작품의 미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에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비평은 작품에 대한 향수와 감상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계획보다는 설계 작품에서 비평의 기작이 발현되기 마련인 것이다. 이때 조경설계작품은 설계안과 시공된 작품의 두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밖에 일정한 시기와 시대에서 나타나는 조경작품의 경향, 양식, 사조 등도 조경작품의 카테고리내에서 비평의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다고 본다.

로서의 「조경가」의 문제는 조경가의 성향, 경력과 성장 배경, 작품경향, 조경가의 창조성, 독창성, 문제해결능력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조경계」는 조경계 내부의 문제와 당면 이슈, 조경교육, 실무 조경가 사회내의 여러 문제 등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조경과 사회와의 관계」는 조경작품과 시대적·사회적 가치의 문제, 경제적 해결 가능성, 사회 경제적 구조속에서의 조경의 위상 등의 문제로 설정해 볼 수 있겠다. 그밖에 조경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건축작품, 도시적 맥락, 도시의 문화환경, 도시경관 등은 조경작품의 상위 개념인 동시에 조경작품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조경비평의 대상으로서 설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물론 비평작업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 행해지기보다는, 여러 대상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관계와 고리들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임은 말할나위 없다.



#### 4. 조경비평의 개념 정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조경비평을 다음과 같이 개념 정의할 수 있다. 즉, “조경비평(Landscape Architectural Criticism)이란 조경가들이 창조한 비평의 소재, 즉 조경작품이나 조경가의 경향, 조경계, 조경과 사회와의 관계 등을 대상으로 하여 조경비평가나 식견과 통찰력을 가진 조경사가나 조경미학자 등이 대상에 대해 비판과 찬사, 혹은 비교와 감상 등을 하기 위해 분석, 기술, 해석, 평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환경의 형성 혹은 개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서 그 시대의 인간 삶과 조경양식을 반영하는 행동의 궤적이다.”

즉, 조경비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떠한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과정이며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조경비평에 있어서 이 ‘의미’란 결국 “조경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결부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끊임없이 변해왔음을 조경사는 보여주고 있다. 현대의 상황은 조경에 대해 일괄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다원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되며, 조경에서도 일단 장르별로 각각의 이론이 수립될

<그림 1> 조경비평의 대상

조경작품 외에 「조경가」, 「조경계」, 「조경과 사회와의 관계」 등은 어느정도 명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비평 대상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장르별 특성이 다시 전체를 총괄하는 이론으로 모아질 때 진정한 「조경비평」의 개념 정의가 가능할 것 같다.

### III. 조경비평의 방법론

조경비평은 디자인 언어의 정밀함을 기르고, 평가의 새로운 방법을 도출해내며, 변화를 부추기는 등 조경실무에 창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sup>20)</sup> 그러므로 조경비평가는 비평의 대상인 조경작품에 대해서 명확하고 폭넓은 인식을 가진 후에 비평해야 한다. 그러나 비평의 과정에 논리적 일관성과 체계를 갖춘 비평방법론이 전제되지 않으면 소위 '비평의 지적 폭력'이 될 소지가 많게 된다.

만약 비평적 기작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면, 비평에 쓰여지는 방법들의 유용성과 폐해들을 쉽게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비평의 형태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조경계의 현실에서 그 방법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방법론을 모색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일단 이 글에서는 건축비평 분야에서 어느정도 일반화된 애토우의 방법론을 참고하고자 한다.<sup>21)</sup> 애토우는 그리인이 제시한 비평의 카테고리, 리프먼이 분류한 예술비평의 방법, 스미드가 마련한 비평의 틀, 콜린스가 제시한 건축비평의 카테고리 등을 토대로 비교하고,<sup>22)</sup>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방대한 분량의 건축비평들을 분석하여 그 방법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과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조경비평의 방법론을 모색하는데에도 많은 부분을 차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다.

다음에서는 그가 제시한 비평의 방법론을 틀로 삼고 여타의 이론을 보강한 후 조경비평에 적용하여 각 방법의 특성을 서술함으로써 조경비평 방법론의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 보고자 한다. 물론 각각의 방법은 하나의 비평에서 몇가지가 한데 뭉뚱그려져서 나타나게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각을 따로 떼어 비교·설명하고자 한다.<sup>23)</sup>

#### 1. 규범적 비평

규범적 비평(Normative Criticism)은 조경비평을 위한 기준으로 어떤 원리나 원칙이 확립되어 있어 여기에 입각하여 비평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교조나 체계, 유형 등을 기본으로 하는 원리에 따른 비평이며,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삼는 비평의 고전적인 본질과 부합되는 방법이다.<sup>24)</sup> 이는 스톨니츠가 말하고 있는 「규칙에 의한 비평」과 같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sup>25)</sup> 규범은 물리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철학적 세계관이나 미적 개념으로부터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와 같은 디자인적 신념, 혹은 특정한 상황에서의 모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건축의 경우, 대부분의 건축비평들과 건축사자들이 이 방법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브스너에게 있어서 건축은 「시대정신(Zeitgeist)」의 불가피한 반영이었다.<sup>26)</sup> 기디온이 근대 건축을 바라보는 가장 보편적 시각은 「시공간 개념」이었다.<sup>27)</sup> 제비에게 있어서 「공간」은 건축이 되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였다.<sup>28)</sup> 또한, 뱌험에게

20) Elizabeth K. Meyer(1991)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as a Critical Practice", *Landscape Journal* 10(2) : 156-57.

21) Cf. Attoe, *opcit.*, pp.11-108.

22) Cf. T. M. Greene, *opcit.*, pp.369ff.; Matthew Lipman(1967) *What Happens in Art*, N.Y.: Appleton-Century-Crofts, pp.132-34.; Samuel Stephenson Smith(1969) *The Craft of the Critic*, Books for Libraries, p.15.; Collins, *opcit.*, p.146.

23) 각 방법에 대한 사례 비평문은, 배정한, 앞의 논문, pp.53-76을 참고할 것.

24) Attoe, *opcit.*, p.11.

25) Cf. Stohnitz, *opcit.*, pp.418-24.

26) Cf. N. Pevsner(1972) *A History of European Architecture*, London : Penguin Books.

27) Cf. Sigfried Giedion(1973) *Space, Time and Architecture*,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28) Cf. Bruno Zevi(1974) *Architecture as Space*, N. Y. : Horizon Press.

있어서의 「미래주의적 역동성」과 「아카데미한 중심성」 사이의 기술결정론이라든가, 타푸리가 네오맑시스트적 입장에서 「이데올로기의 표현」으로서 건축을 파악한 점<sup>30)</sup> 등도 모두 건축 외적인 비평원리에 의한 규범적 비평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조경에서도 디자인을 지배해 온 몇가지 규범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세기 풍경식 정원의 성립에 선도적 역할을 한 윌리엄 켄트(William Kent)의 “자연은 직선을 싫어한다”<sup>31)</sup>라는 신념을 살펴보자. 켄트는 이 신념을 바탕으로 정원의 세부에 있어서 종래의 양식을 없애고자 했다. 직선적 화로, 가로수, 산울타리등을 모두 없애고 부드럽고 불규칙한 연못과 시냇물과 곡선의 원로를 만들었으며, 자연풍경을 더욱 실감있게 묘사하기 위해 고사한 나무까지 심었다는 일화도 있다. 그의 이 유명한 교의는 시인 포프(Alexander Pope)의 “모든 정원은 회화이다”라는 주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는 정원이란 그림같은 목가적인 것이라고 믿어 영국의 전원풍경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고자 노력했다. 왈폴(Horace Walpole)은 켄트를 「근대 조경의 아버지」라고 평했으며, 홈(Henry Home)은 『*Elements of Criticism*』에서 “켄트의 정원은 화가가 캔버스에 풍경을 구성하듯, 아름다운 자연물과 인공물을 배치했다”라고 평했다. 켄트의 정원관은 브라운(Lancelot Brown), 램턴(Humphry Repton) 등에게로 이어져 영국의 풍경식 정원양식의 확립에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잡게 되며, 후대의 비평가들은 이러한 켄트의 규범을 바탕으로 다른 작품에 많은 평가를 행했다.<sup>32)</sup> 그의 규범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자연을 닮은 것이 최상의 조경’이라는 비평기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연을 닮은 조경이 좋다’식의 규범은 그러한 원칙이나 기준이 존재한다는 신념에 근거

한 것이지 실제의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에 대한 관념은 대부분이 어떠한 규범을 바탕으로 한 가치평가에 모여 있고, 비평가에게서 가치판단을 기대하는 것이 통념이다. 즉, 규범적 비평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어떤 비평의 기준이 어떤 사실을 잘 해석할 수 있다하더라도 다른 해석 역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때 그 비평은 객관성을 상실한 채 편협성에 기울기 쉽다는 점이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정해진 자로 재려는 데에서 오는 결정론의 유혹은 규범적 비평이 피해가야 할 또 하나의 큰 함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해석적 비평

해석적 비평(Interpretive Criticism)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그 방법이 개인적이라는 점이다. 즉, 비평가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 인상 등이 외적 기준보다 중요한 것이다. 해석자로서의 비평가는 외부의 어떤 기준이나 원리, 체계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정서와 개성적 해석력이라는 수단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매우 주관적인 방식이며, 비평가의 깊은 통찰력이 요구된다. 비평가는 환경을 자신의 특정한 시각에서 보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다른 이의 시각을 자신의 것에 맞추어 공감을 얻고자 한다.<sup>33)</sup> 이렇게 함으로써 비평가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시야나 관찰방식을 제공해준다. 혹은 비평가 자신의 예술적 비평수단을 통해서 독자의 감정을 자신과 비슷해지도록 호소한다. 따라서 해석적 비평가는 그 자신만의 독특한 비평적 작품세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적 비평은 스틸니쯔가 말하는 「인상주의 비평」이나 「의도주의 비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sup>34)</sup>

29) Cf. R. Banham(1980),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Cambridge : MIT Press.

30) Cf. Manfredo Tafuri(1976) *Theories and History of Architecture*, N. Y. : Harper & Row.

31) George William Johnson(1829) *A History of English Gardening-Chronological, Biographical, Literary, and Critical*, London : Baldwin & Cradock / Reprint ; N. Y. : Garland Publishing Inc., 1982, pp. 263-64.

32) Cf. T. Newton(1976) *Design on the Land*,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pp. 207-20.

33) Attoe, *op.cit.*, p.49.



개인적 정서에 의지한 건축비평가의 가장 좋은 예로 스킨리를 들 수 있다. 그는 역사적 건축에서 건축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미지를 찾아내어 시적인 정서를 전하는데 주력했다. 그래서 그의 비평은 하나의 문학과도 같은 예술적 성격을 띤다. 『*Modern Architecture, 1961*』에서 그가 시도한 것은 근대건축의 원인, 진화, 의의 같은 역사적 사실의 규명이나 의미의 추구가 아니라, 건축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무엇이기를 바라는가 하는 형이상학적 질문에 답변을 구하려 한 것이었으며, “결국 우리 근대인 모두가 거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위치를 밝혀보려는 끝나지 않은 시도”였다. 따라서 그의 건축비평은 건축전문가에게 유익하기보다는 건축에 관심이 있는 지식인층에게 건축적인 감각을 증진시켜주는 창작적인 예술로서의 비평의 성격을 띤다.<sup>34)</sup>

해석적 비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관적인 해석이 진리치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동일한 작품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들이 양립가능한가 하는 물음은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비평철학의 주요한 논쟁 중의 하나인 것이다.<sup>35)</sup> 전형적인 해석적 언급을 ‘W는 I이다’(변수 W에는 작품이, 변수 I에는 작품에 대한 해석적 술어가 들어간다, 예컨대 “피터 워커(Peter Walker)의 Tanner Fountain은 환상적이다”)라고 정식화할 때, 이 언술은 ‘W는 나에게서 I이다’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어즐리(Monroe C. Beardsley) 등은 ‘W는 I이다’가 ‘W는 그대로 I이다’라고 주장한다. 이 입장의 특징은 해석적 비평은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서로 다른 해석의 양립가능성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마골리스(Joseph Margolis) 등은 ‘W는 I이다’를 ‘W는 I인 것이 그럴 듯하다’로 본다. 이 입장은 해석을 설명적 가설(explanatory hypothesis)로 보며, 서로 다른 해석들의 양립가능성을 허용한다. 이렇듯 비평에 있어서 ‘해석’의 문제는 많은 논쟁 속에 놓여져 있다. 물론 비평에 있어서 ‘해석’은 작품이

지니는 내재적 의미를 명료하게 조명해 줄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해석적 비평은 조경가의 의도나 작품의 본질과 어긋난 채 지나치게 주관성에 몰입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3. 기술적 비평

기술적 비평(Descriptive Criticism)은 사실이 중요하고 모든 것을 가장 잘 말해준다는 신념에 의거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는 비평이다. 기술의 궁극적 목표는 사실이다. 과학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객관성과 공평성을 추구하는 기술적 비평은 판단하거나 해석하기에 앞서 우선 조경작품이나 도시환경에 관련된 객관적 사실들을 수집하여 알려주는데 초점을 둔다.<sup>36)</sup> 만일 우리가 환경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판단내릴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인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 비평에서는 비평가의 느낌이나 주관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단지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고, 형태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과 묘사를 통해 이해와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 줄 뿐이다. 물론 판단을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고 단지 기술과 분석 중에서 언연 중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요컨대, 기술적 비평은 비평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인 정보의 제공 및 전달을 최우선의 사명으로 삼으며, 대중들의 건조환경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조경에 대한 새로운 경험의 가능성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가 보다 넓은 조경에 대한 이해와 평가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문학비평에서는 언어 분석으로 출발하여 작품의 요소들을 추출하고 그들 사이의 연합, 통합 관계를 밝히는 ‘신비평’(New Criticism)의 입장이 이와 유사하고, 조형예술분야에서

34) Cf. Stolnitz, *op cit*, pp.451-58.

35) Cf. Vincent Scully(1961) *Modern Architecture*, N.Y.: George Braziller.

36) 김성수(1992) “예술비평에 있어서 해석의 문제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논, ppi:ii.

37) Attos, *op cit*, p. 85.

는 작품들을 예술 전반의 형식적인 진보에 비추어 그 위치를 밝히고 확인하는 ‘양식사적 미술사학’이 작품의 형식 기술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술적 비평과 비슷하다.

조경비평의 방법으로서 기술적 비평은 판단하거나 해석하기에 앞서 우선 작품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들을 수집하여 알려주는데 초점을 두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조경적 판단이나 평가가 배제된 묘사나 설명이, 즉 객관적 기록이 비평일 수 있겠느냐는 의문과, 주관이 배제된 객관적 기록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을 해결할 수 없다. 사실상 기술적 비평은 주관을 보류할 뿐이지 주관의 완전한 배제란 불

가능하다. 따라서 주관성의 개입은 다만 상대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본다. 비평가는 비평 대상의 선정과 중심적 묘사 및 강조점의 선택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관적 판단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작품을 가장 객관적으로 묘사해 준다고 할 수 있는 사진의 경우에도 찍는 이가 작품을 보는 각도와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구도에서 주관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객관성을 표방하는 기술적 비평이 지닌 한계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논의한 규범적 비평, 해석적 비평, 기술적 비평을 더욱 세분하면 다음의 <표 1>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sup>38)</sup>

(표 1) 조경비평 방법론의 유형과 내용

방	법	론	내	용
규범적 비평 Normative Criticism		교의적(Doctrinal)비평	일정한 교의를 기준으로 판단, 평가	
		체계(Systematic) 비평	신조·원칙이 모인 규범체계를 근거로 평가	
		전형(Typal) 비평	특정용도의 조경을 일반화로 설정하고 그에 비취 검토	
		계량(Measured) 비평	명확히 규정된 수량으로 환원하여 판단	
해석적 비평 Interpretive Criticism		변호(Advocatory) 비평	매력등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해 변호인의 역할을 하는 것	
		환기적(Evocative) 비평	비평의 자극효과를 최대로 하기 위해 연상, 대조 등을 동원하는 것	
		인상주의적 비평 (Impressionistic)	대상 조경을 시, 노래 등의 소재로 삼거나 사진편집으로 새로운 이미지 창출	
기술적 비평 Descriptive Criticism		묘사(Depictive) 비평	작품의 정·동적 측면과 설계과정을 묘사	
		전기(Biographical) 비평	조경가에 관한 전기적 사실을 보여 줌	
		맥락(Contextual) 비평	조경설계와 공사에 연관된 사건 열거, 작품과 사회·문화적 맥락의 관계 설명	

4. 조경비평과 객관성의 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규범적, 해석적, 기술적 비평은 인간의 비평적 가치판단을 둘러싼 오랜 논쟁의 여러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시대 어떤 형태의 비평에도 늘 뒤따랐던 하나의 현상은 가치판단에 대한 불신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신감은 많은 학문분야가 금세기에 들어서서 과학적 태도와 절차를 갈망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경험과학이 차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지적 위상을 비평에도 확립시키려는 목적에서 비평가들은 엄밀한 객관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이다. 이는 가치판단에 의한 절대주의적 평가가 지니는 폐쇄성의 위협에 대한 반동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최고의 비평가로 평가받고 있는 프라이에 의한 비평의 과학화가 주목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비평이란 “작품의 분야에 대한 귀납적 탐사에서 유도될 수 있는 개념적 틀에 의거하여 작품을 검토하는

38)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사례는, 배정환, 앞의 논문, pp. 60-76을 참고할 것.

일”<sup>39)</sup>이며 “지식의 체계적인 조직화”<sup>40)</sup>인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객관적 방법론 역시 논리적인 문제점을 지닌다. 프라이의 경우 그가 귀납적 방법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기 위해 추론적 또는 직관적 사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그 단적인 예이다.<sup>41)</sup> 만일 그의 방법론이 그 자신을 포함하여 누군가에 의해서도 진리임이 입증될 수 없는 한, 그가 말하는 「비평의 과학화」란 여전히 또 하나의 환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실제의 비평가나 비평가들이 실증주의적인 경험과학적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예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경험과학적 방법론이 예술작품의 의미와 형이상학적 논리를 규명하는데 지니는 한계 때문일 것 같다. 따라서 비평가들은 경험과학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객관성을 유지하되 경험과학적 방법론의 한계에 대응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 예가 직관론적 방법이다. 직관론적 방법론은 과학이 제공할 수 없는 객관성, 즉 ‘형이상학적’ 객관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이며, 과학과 달리 ‘선택적 직관’과 ‘연역적 추론’에 의지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인식론적 방법을 택하는 비평적 경향을 현대의 과학주의에 대한 일종의 반동적 몸짓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비평의 역사란 「객관성」을 둘러싼 변증법적 발전에 의해 진행되어 온 것이다.

조경분야에서도 예술비평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경관평가분야에서 ‘객관성’을 둘러싼 유사한 대립적 논의가 종종 있어 왔다. 경관의 미적 가치의 분석에 있어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각각 주장한 칼슨과 라이브간의 논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sup>42)</sup> 조경비평에 있어서도 늘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비평이 담보해내야 할 「객관성」이라 할 수 있다. 초보적 단계에 있는 조경비평에 객관적 성격이 미흡하게 된다면, 조경비평은 자칫 “비평은 예술에 기생하고 있는 표현방식이며, 기존의 예술에 얽혀사는 예술이며, 창조적인 힘의 이차적 모방”<sup>43)</sup>이라는 식으로 그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조경비평이 지향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그 구체적 방법론이 규범적 비평이든 해석적 비평이든 기술적 비평이든간에 「객관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조경비평에서 “객관성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확보되며 증명되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객관성을 담보하기에 유용한가?”라는 의문은 결코 쉽게 풀리지 않는다. 사실과 진술의 상응을 객관성의 기준으로 믿어온 실재론과 실증주의의 관점은 가장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수긍되어왔다. 그러나 이 관점은 물리학에서조차 확정적인 관찰이 불가능함이 드러남으로써 상응여부의 확인방식을 확고한 것으로 제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대의 모든 학문분야에서 논쟁거리로 이어져왔다. 한편, 최근에 그 세를 더해가고 있는 관념론적 주관주의의 조류는 의미라는 것이 구조주의적인 정밀언어나 체계화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며 계량화가 가치를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과학적 접근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관념론적 접근 역시 한계를 지니며 궁극적인 객관성의 절대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39) Northrop Frye(1973) *Anatomy of Criticism*, N.J.: Princeton Univ. Press, p.7.

40) *Ibid.*, p.18.

41) 프라이 스스로가 「*Anatomy of Criticism*」의 서문에서 인정하듯이 그의 논리는 “추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예증이 지극히 선택적이다.”

42) Cf. A.A.Carlson(1977) “On The Possibility of Quantifying Scenic Beauty”, *Landscape Planning* 4:131-71, (1984) “On The Possibility of Quantifying Scenic Beauty -A Response to Ribe”, *Landscape Planning* 11:49-65.; R.G. Ribe(1982) “On The Possibility of Quantifying Scenic Beauty- A Response”, *Landscape Planning* 9:39-41, (1986) “On The Possibility of Strong versus Weak Quantification of Scenic Beauty- A Further Response to Carlson”, *Landscape Planning* 12:421-29.

43) Frye, *op. cit.*, pp. 34.

것 같다.<sup>44)</sup>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의 인식 틀에 대한 집착보다는 조경의 이해에 필수적인 미적 가치에 관한 가설적인 객관성의 판단 기준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조경비평의 방법론 모색에 유용한 관점이 아닌가 생각되며, 인간의 비평적 작업에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다는 평범한 논리를 인정함이 옳다고 본다. 비평언어와 이론, 방법론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고 반성할 수 있는 비평의 '성실성'이 결국 초보적 단계에 있는 조경비평이 지향해야 할 방법론적 객관성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된다.

#### IV. 한국 조경비평의 방법론적 문제점

인간의 모든 창조적 활동이 그렇듯이 비평의 분야도 그 풍토에서 쌓아온 선행업적들을 발판으로 할 때에 보다 명확한 자리매김이 가능하게 된다. 조경비평이 어떠한 현실에 놓여 있으며 그 진로는 장차 어느 방향이어야 할 것인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소위 메타크리티시즘(meta-criticism)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sup>45)</sup> 비평의 이론과 방법론은 결국 현재까지의 비평의 양상에 대한 검토, 즉 비평에 대한 비평을 통해서 연구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평의 불모지라고도 할

수 있는 한국 조경의 현실에서 지금까지의 양상을 되돌아 보고 유형화하는 작업이 충분히 진행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비평을 표방한 글들은 아니지만 「환경 & 조경」의 몇몇 난에 소개되는 해외작품에 대한 간단한 해설, 전국조경작품전의 수상작들에 대한 지도교수의 평을 실은 근간의 도서, 일간지 문화면의 기획특집 등에서 미약하나마 조경비평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은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소중한 단서가 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비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비교적 오랜 나이테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의 양상과 문제점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한국조경작품전」에 대한 「작품평」 40개를 대상으로 삼고, 앞 장에서 논의한 비평의 방법론을 도구로 하여 방법론적 문제점을 메타크리티시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의 「ASLA AWARDS 심사평」 70개에서 파악되는 비평 방법의 경향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sup>46)</sup>

한국조경작품전 수상작에 대한 작품평에서 나타나는 방법론적 양상과 각 방법의 전체적인 분포는 <표 2>와 같이 요약될 수 있으며, ASLA AWARDS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규범

44) Cf. 김여수(1981) "진리란 무엇인가?", 현대사회와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pp.11-36.

45) 디키는 비평가들이 하나의 예술작품을 기술하거나 해석하거나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본 개념들을 분석하고 명료하게 하는 철학적인 작업이라고 메타크리티시즘을 설명한다(Cf. George Dickie(1966) *Aesthetics: An Introduction*, 오병남·황유경 역 (1980), pp.62-66). '비평'이라는 언어행위는 '작품'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작품'이 구축하고 있는 이른바 '가능세계'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메타크리티시즘'이라는 언어행위는 '비평'을 검토하는 가운데 '작품'에 대한 이해방식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장경렬, 앞의 논문, pp.35-36).

46) 분석과 비교의 대상으로 채택된 비평의 범위와 출처는 다음과 같다.

1987년 제4회 한국조경작품전 대상(1), 은상(2), 동상(4) 수상작에 대한 작품평 7개, 1988년 제5회 한국조경작품전 대상(1), 금상(2), 은상(3), 동상(4) 수상작에 대한 작품평 10개, (이상의 자료; 『한국조경작품전 수상작 모음집』 1990, 도서출판 조경) 1986년 전국대학생조경작품특선에 대한 작품평 11개 (자료; 『환경 & 조경』 1987, No.15), 1991년 제8회 한국조경작품전 추천작에 대한 작품평 3개 (자료; 『환경 & 조경』 1992, No.45-46), 1973년부터 1991년까지 ASLA Professional Design Competition Design 부문의 Honor Award(56개), President's Award(6개), Special Award(3개), Classic Award(1개) 등에 대한 작품평 (Source: ASLA Professional Design Competition 1973-1991, in 『Landscape Architecture』).

적 비평을 18개의 작품평에서(45%), 해석적 비평을 17개의 작품평에서(42.5%), 그리고 기술적 비평을 28개의 작품평에서 (70%) 볼 수 있듯이, 기술적 비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규범적 비평을 37개 작품평에서(52.9%), 해석적 비평을 28개 작품평에서(40%), 그리고 기술적 비평을 6개 작품평에서(8.6%) 볼 수 있다. 즉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적 비평의 많고 적음이라 할 수 있다.

〈표 2〉 분석 대상 비평방법의 분포

비평방법	한국조경작품전		ASLA AWARDS	
	비평수 (개)	비율 (%)	비평수 (개)	비율 (%)
1. 규범적 비평	18	45	37	52.9
교의적 비평	4	10	1	1.4
체계비평	14	35	36	51.3
전형비평	1	2.5	0	0
계량비평	0	0	0	0
2. 해석적 비평	17	42.5	28	40
변호비평	13	32.5	27	38.6
환기적 비평	3	7.5	1	1.4
인상주의적 비평	3	7.5	0	0
3. 기술적 비평	28	70	6	8.6
묘사비평	16	40	5	7.1
전기비평	0	0	0	0
맥락비평	14	35	1	1.4

한국의 경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적 비평은 사실의 전달과 객관적 기록이 비평의 최대 임무라는 기술적 비평 본연의 목적이 반영된 결과라기보다는, 비평 문화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조경계의 여건상 과감한 판단이나 주관적 해석을 회피하고 단순한 사실 기록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비평이 부재하는 한국 조경계의 한 단면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기술적 비평이 소수를 차지하고 규범적 비평과 해석적

비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는 어느정도 비평이 일상화된 미국 조경계의 양상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모두 규범적 비평의 성격을 띤 작품평의 대부분은 체계비평(systematic criticism)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체계적 비평이라 함은 단일한 규범에 의해 대상을 평가하는 교의비평의 결합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을 지닌 비평방법으로서 다수의 원리나 교의에 의해 대상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 작품평에서 볼 수 있는 체계비평의 대부분은 단일한 규범에 대한 거부로 체계적 규범을 택했다기보다는, 조경계 내부에 동의된 언어나 코드가 없음으로 인해 여러가지 혼란한 규범을 자의적으로 모아서 비평의 잣대로 삼은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해석적 비평의 대부분은 변호비평(advocatory criticism)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작품평의 대부분은 작품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본연의 해석적 비평의 성격을 띠고 있기보다는 막연한 긍정적, 감정적 평가의 성격을 주로 띠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해석적 비평이 안고 있는 큰 위험인 '근거없는 주관성'의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V. 맺음말

앞에서는 비평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조경계의 실정상 작품에 대한 실제비평의 전단계로 비평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비평의 주된 구성 성분인 개념, 대상,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어 조경비평의 체계를 모색한 바 있다. 관련된 선행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논리 전개에 다소의 비약을 불가피하게 개입시켰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조경비평의 이론에 대한 발전적인 후속 연구는 물론 실제비평도 활발히 진행되어 보다

정교한 연구 성과가 생산되고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경비평의 궁극적인 목적인 실제비평(practical criticism) 작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비평이 받아들여지는 환경, 즉 비평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sup>47)</sup> 조경비평이 성립될 수 있는 토양은 故정인국 박사가 “온전한 비평을 위해서는 대상이 될만한 건축작품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비평이 받아들여질 만한 건축계의 풍토가 마련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비평가 혹은 비평가 집단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있어야 한다”<sup>48)</sup>고 제시한 건축비평의 조건과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다. 즉, 기본적으로 조경비평의 장을 구성하는 성분은 <전문비평가>와 <비평의 매체>일 것이다. 식견과 통찰력을 지닌 비평가를 발굴하고 계속 비평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저널, 학회, 각종 단체 차원에서의 등용문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비평의 대중적·공개적 매체 없이 비평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은 우리의 조경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조경비평 전문지의 등장이 필요함을 반증한다.

현대의 한국 조경작품에서 별다른 경향성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의 부재는 곧 비평의 부재를 의미한다. 비평문화의 부재는 곧 문제의식의 결핍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대안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하며, 이 속에서 우리의 조경은 무질서한 자유를 향락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재는 아직 이르다’라느니 ‘현재는 과도기’라는 도식이 부정적 인식이 아니라 타당한 인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오늘의 현실은 퇴보를 가져올 뿐이다. 18세기를 무대로 하여 펼쳐졌던 영국 풍격식 정원양식의 태동에 샤프스베리(Earl of Shaftesbury)나 에디슨(Joseph Addison)의 비평이 혁혁한 영향을 미쳤다는 역사적 선례는, 조경비평은 결코 새로운

모험이 아니며 현재의 조경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는 실천적 도구임을 옹변하고 있다.

## 인용 문헌

1. 김문환(1989) “예술비평의 미학적 해명”, 『성곡논총』, 20: 516-17.
2. 김성수(1992) 「예술비평에 있어서 해석의 문제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 논.
3. 김여수(1981) “진리란 무엇인가?”, 『현대사회와 철학』, 문학과 지성사, pp. 11-36.
4. 배정환(1993) 「조경비평의 이론과 방법론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 석. 논.
5. 백기수(1978)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6. 장경렬(1991) “비평의 논리”, 『현대비평과 이론』, 1(1): 10-36.
7. 정인국(1974) “건축사의 장래”, 『건축사』, 5월호: 7.
8. 『한국조경작품전 수상작 모음집』, 1990, 도서출판 조경.
9. 황기원(1983) “조경의 역사와 역사 속의 조경”, 『토지개발기술』, 춘계호: 36.
10. 황유경(1991) “분석미학에 있어서 예술비평의 문제”, 『미학』, 16: 155.
11. Aldrich, V.C. (1963) *Philosophy of Art*, 오병남 역(1983) 『예술철학』, 서울: 종로서적.
12. “ASLA AWARDS”, (1973-1992) *Landscape Architecture*
13. Attoe, W. (1978) *Architecture and Critical Imagination*, N. Y.: John Wiley & Sons.
14. Bachman, G. (1981) “The Arts and Human Settlements”, *EKISTICS*, 48(288): 183.
15. Banham, R. (1980),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Cambridge: MIT Press.
16. Burton, P. & R. Hertz (1989) “Deconstructing Landscape”, *The Avant-Garde and the Landscape: Can They Be Reconciled*, Minneapolis: Landworks Press.

47) 문화비평가 이글턴의 견해를 빌리자면, 비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평이 생산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sphere)’이 존재해야 한다.(Cf. Terry Eagleton(1991) *The Function of Criticism*, London: Verso Editions).

48) 정인국(1974) “건축사의 장래”, 『건축사』 5월호, p. 7.

17. Carlson, A.A. (1977) "On The Possibility of Quantifying Scenic Beauty", *Landscape Planning* 4: 131-71.
18. \_\_\_\_\_ (1984) "On The Possibility of Quantifying Scenic Beauty - A Response to Ribe", *Landscape Planning* 11: 49-65.
19. Collins, P. (1971) *Architectural Judgement*, London: Faber.
20. Dickie, G. (1966) *Aesthetics: An Introduction*, 오병남·황유경 역 (1980) 「미학입문」, 서울: 서광사.
21. Eagleton, T. (1991) *The Function of Criticism*, London: Verso Editions.
22. Eliot, T.S. "The Function of Criticism" in *Selected Essays 1917-32*, 최중수 역 (1974) 「문예비평론」, 서울: 박영사.
23. Frye, N. (1973) *Anatomy of Criticism*, N.J.: Princeton Univ. Press.
24. Galay C.M. & F.N. Scott. (1901) *An Introduction to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Literary Criticism: The Basis in Aesthetics and Poetics*, Boston: Ginn & Co.
25. Giedion, S. (1973) *Space, Time and Architecture*,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26. Greene, T.M. (1952) *The Arts and the Arts of Criticism*, Princeton Univ. Press.
27. Greene, W.C. (1965) *The Choices of Criticism*, Cambridge: MIT Press.
28. Hubbard, H.V. & T. Kimball (1917)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Landscape Design*, N.Y.: MacMillan.
29. Johnson, G.W. (1829) *A History of English Gardening: Chronological, Biographical, Literary, and Critical*, London: Baldwin & Cradock/Reprint; N.Y.: Garland Publishing Inc., 1982.
30. Lipman, M. (1967) *What Happens in Art*, N.Y.: Appleton-Century-Crofts.
31. Meyer, E.K. (1991)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as a Critical Practice", *Landscape Journal* 10(2): 156-57.
32. Newton, N.T. (1976) *Design on the Land*,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33. Pevsner, N. (1972) *A History of European Architecture*, London: Penguin Books.
34. Picon, P. (1953) *IEcrivain et son ombre*, 유재호 역 (1985) 「예술가와 그의 그림자」, 서울: 홍성사.
35. Ribe, R.G. (1982) "On The Possibility of Quantifying Scenic Beauty-A Response", *Landscape Planning* 9: 39-41.
36. \_\_\_\_\_ (1986) "On The Possibility of Strong versus Weak Quantification of Scenic Beauty- A Further Response to Carlson", *Landscape Planning* 12: 421-29.
37. Rodway, A. (1973) "Criticism", *A Dictionary of Modern Critical Terms*, ed. R. Fowle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38. Scully, V. (1961) *Modern Architecture*, N.Y.: George Braziller.
39. Stephenson, S.S. (1969) *The Craft of the Critic*, Freeport: Books for Libraries.
40. Stolnitz, J. (1960)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Criticism*, 오병남 역 (1990) 「미학과 비평철학」, 서울: 이론과 실천.
41. Tafuri, M. (1976) *Theories and History of Architecture*, N.Y.: Harper & Row.
42. Tatarkiewicz, W. (1976) *A History of Six Ideas - An Essays in Aesthetics*, 이용대 역 (1990) 「여섯가지 개념의 역사-미학에세이」, 서울: 이론과 실천.
43. Welck, R., 최영 역 (1991) "문학비평에 대한 역사적 조망", 「현대비평과 이론」 1(2): 219.
44. Zevi, B. (1974) *Architecture as Space*, N.Y.: Horizon Press.